입법의회 (NLA) 학술위원회, 헌법에 따른 자유 행사와 국가 권력 행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입력 2018.05.15 (16.28)

2018 년 5 월 15 일 – 입법의회 학술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자유행사와 국가권력 행사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 법률관계자의 이해를 형성하여 사회질서를 세우는 것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추구

입법의회 학술위원회는 국회 산하 학술기관(King Prajadhipok's Institute, KPI) 및 정치행정학회(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NIDA) 와 함께 제 2 국회 빌딩에서 헌법에 따른 자유행사와 국가권력 행사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펀펫 위칫촌라차이 입법의회의장(NLA) 은 평화적 비무력적인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중요한 기본원칙이며 또한 이와 같은 자유는 1948 년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한편 법률학적으로 자유권은 중요하나 국가의 안보가 있어야 하고 국가의 질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자유와 국가의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각 사회에서 평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권력 사용과 국민 집회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의견 공유이다.

입법의회 제 2 부의장인 피라삭 퍼짓은 입법의회 학술위원회장으로써 "입법의회의원, 위원회 그리고 모든 기관들에게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자유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시켜 헌법에 따른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률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발생토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입법의회 의원인 쏨킷 릿파이툰은 "2017 년 헌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자유권을 많이 보장하였다. 이는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자유권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어쨌든 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안보하에 국민은 어떠한 법이 제한을 두지 않는한 당연히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따른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주요내용을 연설하였다.

한편 NIDA 연구소의 박사학위 교과 과정 학장인 반쯧 싱카네띠는 "각 경우에 있어서 자유권 행사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하나 헌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제 44 조에 따른 집회의 자유는 비무력 평화적인 집회인 경우에만 보호가 된다. 이와 동시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국가의 안보, 질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따라서 주요 고려사항은 제 44 조에 따른 집회의 자유 행사와 형사법 제 215 조에 따른 국가 혼란 발생 야기 사이의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이 경계선은 형사법 적으로 죄를 묻거나 자유권에 관련된 법률적 해석의 문제이고 관계자의 재량 사항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태국 하원사무처 국회 방송국
랏카나 트어텅/기자/편집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 한국어과
쏨자이 통쿤/번역